

Mercosur FTA 정책과 한-Mercosur FTA 체결 가능성 추정*

박순찬**

제1저자/공주대학교

이상현

교신저자/전북대학교

Park, Soonchan and Sang-Hyun Yi (2015) "Mercosur FTA Policy and Estimating the Probability of Forming the Korea-Mercosur FTA"

ABSTRACT

Not only economic factors and geographical distance but also socio-political proximity may be important determinants of form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 socio-political factors and political tie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RTAs. Cultural proximity is measured by the cultural indices such as language and religion, and political ties are measured by existence of military alliance and level of democracy. This paper applies qualitative choice model estimation techniques (pooled Probit model with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to panel data covering bilateral country-pairs among 195 countries between 1995 and 2010. Furthermore, we estimate the probability of forming Korea-Mercosur FTA as an application. We find that the RTA formation has been strongly and significantly driven by deepening socio-political linkages between member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also find that the likelihood of forming Korea-Mercosur FTA is significantly low.

Key Words: regional trade agreements, determinants of FTA, Mercosur FTA policy, Korea-Mercosur FTA, Mercosur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749).

** Soonchan Park is professor of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ang-Hyun Yi is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Direct correspondence to Sang-Hyun Yi (Email: shyi@jbnu.ac.kr).

서론

현대의 경제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지역에서 전후 경제 부흥을 위한 다양한 시도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유럽 지역에서의 이러한 경제통합 노력은 마침내 1992년 유럽연합(EU)의 출범으로 통합의 결실을 맺었다. 지역통합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한 유럽연합의 출범과 함께 활성화된 범지구적 지역통합의 노력은 ‘신지역주의’라 불리며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목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경제통합은 냉전 체제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강화 그리고 지역기구 형성과 지역 통합에 대한 미국의 정책 전환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Lee 2005).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적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주도 성장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 수출 확대와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협상을 타결하고 2004년 발효된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필두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세계 47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등과 정식 서명을 완료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과도 협상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이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5).

한편 1960년대 이후 경제통합의 실험실로 주목받았던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도 다양한 경제통합 노력을 이어갔다. 196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통합 시도는 1990년대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안데스공동체(CAN),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 이하 Mercosur) 등 다양한 경제통합체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1960년대의 폐쇄적 지역주의와 대별되는 1990년대의 개방적 지역주의의 대표주자격인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를 포괄하는 지역경제통합체로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시장과 인구를 포괄하고 있다 (Kim and Kwon 2011).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다양한 필수 원자재의 보고인 Mercosur는 한국의 무역정책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04년 대통령의 남미

순방시 자유무역협정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합의했으며 이후 연구와 협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Mercosur FTA는 협상의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연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Mercosur FTA의 향후 체결가능성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5-2010년 전 세계 195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한-Mercosur FTA의 향후 체결가능성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다음 장에서는 Mercosur의 발전과정과 FTA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 도출을 위한 실증분석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제시된 실증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Mercosur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확률을 예측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Mercosur FTA 정책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통합체의 하나인 Mercosur는 인구 2억 8천만 명에 국내총생산 3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다. Mercosur는 1991년 3월 26일 서명한 아순시온 조약(Tratado de Asunción)에 기초한다. 아순시온 조약은 대외공동관세 수립을 포함한 경제통합의 일정을 제시하였다. Mercosur는 회원국 간의 지속적인 관세 철폐, 분쟁해결, 거시경제정책 조정, 분야별 산업정책 조정,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였다(Kim et al. 2011, 42).

Mercosur는 출범 4년만인 1994년 12월 7일 오루프레투 의정서(Protocol of Ouro Preto)의 체결을 통해 관세동맹 구축에 합의하며 통합수준을 향상시켰다. 현재 Mercosur는 자유무역지대(FTA)를 거쳐 관세동맹(custom union) 단계에 이른 불완전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으로 평가할 수 있다(Kim et al. 2011, 24).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Mercosur는 출범 이후 여러 국가 또는 통합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Mercosur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통합체는 안데스공동체(CA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자치정부 등이다. 또한 Mercosur는 유럽연합, 중미통합체제(SICA), 터키 등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Mercosur는 모로코, 캐나다, 한국, 카리브공동시장, 도미니카공화국, 요르단, 파나마, 태평양동맹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검토 중에 있다.

Mercosur의 외연적 확장을 의미하는 대외 FTA 정책은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추진되었다기보다는 내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동시다발적이고 제한적인 형태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된다(Kim et al. 2006, 39). Mercosur는 우선 관세동맹의 성격을 지닌 Mercosur 체제와 양립이 불가능해진 기존의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 LAIA, 스페인어명 ALADI)의 체제 속에서 체결된 쌍무특혜관세협정들을 대체하는 자유무역협정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Mercosur는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안데스공동체(CA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Kim et al. 2006, 39). 2000년대 초까지 Mercosur의 대외 FTA 정책은 안데스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그리고 EU로 집중되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국 중심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건설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이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잇달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며 미국 중심의 FTAA는 Mercosur FTA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Mercosur의 좌파 정권들은 미국 중심의 FTAA 대신에 남남협력을 강조하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과의 FTA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결국 FTAA는 협상타결 목표로 설정된 2005년 말까지도 협상을 종결하지 못하여 창설에 실패했다(Kim et al. 2006, 39).

지금까지 Mercosur가 체결한 FTA 대상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일부 중동국가에 국한된다. 또한 Mercosur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와 FTA 보다 낮은 단계인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했을 뿐이다(Kim et al. 2006, 39). 한편 2000년대 이후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EU와의 FTA는 여전히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Mercosur의 FTA의 정책은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대외적 표방과는 달리 제한적인 개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Mercosur의 FTA 정책이 대외적 표방과는 달리 역외에서 뚜렷한 개방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 대외협상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Mercosur 체제의 특징을 들 수 있다(Kim et al. 2006, 187; Malamud 2005).¹ 또한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인데, 이는 Mercosur의 역외 FTA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 제한적인 목적의 달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Kim et al. 2011, 245).

Mercosur FTA 정책의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과의 FTA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향후 FTA 체결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역내 산업보호와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을 추구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Mercosur 주요 회원국들은 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라는 협상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불과하여 실질적 성과가 미미한 제한적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한국과 Mercosur가 공동연구 이후 FTA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일 수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1995-2010년 전 세계 195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한-Mercosur FTA의 향후 체결가능성을 추정할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과 실증분석모형

실증분석모형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로 해당 국가의 소비자 잉여 또는 생산자 잉여가 확대되어 해당 국가의 후생이 증진될 때 국가가 다른 국가와 지역무역협정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후생의 변화를 관찰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McFadden(1975; 1976)의 질적 선택

1 오루프레투 의정서에 따르면 Mercosur는 역외국 또는 역외 통합체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회원국별 협상은 불가능하며 전체 단위로만 협상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Kim et al. 2011, 69-70).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cosur의 대외 협상은 많은 경우 회원국 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주요한 사안들이 추진되고 결정되어 협상의 장기화와 잦은 정체를 초래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대외협상에서 개별회원국들이 협상에 개입할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Mercosur의 대외 FTA 협상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Kim et al. 2006).

모형(qualitative choice model)을 활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을 나타내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이항변수로 표현한다. 즉 두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면 RTA는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TA = 1) = P(y^* > 0) = F(\alpha + \beta'X + e)$$

여기서 P 는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할 반응확률, $F(\cdot)$ 는 표준정규누적분포함수, y^* 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기대되는 후생의 변화, X 는 지역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통제변수를 나타낸다.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지역무역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 경제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경제지리적 요인의 4가지로 대별한다.

경제적 요인

Lipsey(1960)는 관세동맹의 후생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Baier and Bergstrand(2004)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무역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양국의 경제규모, 경제규모의 유사성 및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로 들고 있다.

우선 경제 규모가 클수록 양국 간 교역규모(bilateral trade volume)가 크고,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도 크다. 또한 양국 간 경제 규모의 차이가 작을수록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증가한다. 산업내무역은 경제규모의 차이가 작은 선진국끼리 발생하고 경제규모의 차이가 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무역형태는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기 때문에 경제규모의 차이가 작은 국가끼리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산업내무역이 더 크게 창출될 수 있다. 아울러 산업간무역의 규모는 국가 간 요소부존량의 차이가 클수록 더 크다. 헉셔-올린의 전통적 무역이론에 따르면 상대적 요소부존량(relative factor

endowment)의 차이가 크면 양국은 서로 다른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갖고 그 재화의 생산에 특화(specialization)하게 되어 산업간무역이 증가한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경제 규모를 양국 국내총생산(GDP) 로그 값의 합으로 측정하며, 기대되는 계수 값의 부호는 양(+)이다. 양국 간 경제 규모의 차이는 양국 실질 국내총생산 로그값 차이의 절대값으로 측정되며, 기대되는 계수 값의 부호는 음(-)이다. 그런데 요소부존량을 직접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양국 1인당(per capita) GDP로 측정하고 있다. 기대되는 요소부존량(DKI) 계수 값의 부호는 양(+)이다. 아울러 선행 연구에서는 상대적 요소부존도 차이의 제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무역규모의 차이가 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정치적 요인

무역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 EU의 형성에는 유럽에서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다수의 선행 연구가 국가 간 무역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Mansfield, Milner, and Rosendorff(2002)는 민주주의 국가끼리 그렇지 않은 국가의 조합에 비해 더 자유로운 무역이 실현되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Mansfield and Pevehouse(2000)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Martin et al.(2008)은 무역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성립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Hegre et al.(2010)은 무역의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Martin et al.(2011)도 과거의 전쟁 경험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미친 영향, 아울러 전쟁과 경제적 결정요인의 상호작용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적 결정요인을 대용하는 변수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양국 간 군사협정의 체결 여부를 고려한다.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도 그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역무역협정으로부터의 이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협정의 준수는 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협정 내용의 준수 여부는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 동맹 관계의 형성 여부는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이고,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요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면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² 가장 주된 이유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문화적 요인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 해외시장으로의 진입에 따른 고정비용(entry fixed costs)이 발생한다(Bernard and Jensen 2001; Fabio and Melitz 2005). 이 고정비용에는 외국의 시장에서 생산물의 유통과 해외 소비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비용, 그리고 외국 시장에 대한 정보(information costs) 등을 포함한다. 문화적 차이가 큰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문화적 차이가 작은 국가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의 대상으로 여러 국가를 놓고 선택할 때 수출의 고정비용이 작은 국가를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높다. 그러므로 문화적 근접성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확보 가능한 문화적 지표가 다양한 협력 활동과 문화적 근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비록 제한적이지만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종교와 언어를 고려한다. 관찰할 수 있는 문화적 지표가 종교와 언어이기 때문이다(Helble 2007).

경제지리적 요인

국가 간 무역규모는 두 국가사이에 발생하는 무역비용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2 Park and Park(2013), Chun and Park(2011)은 그 예외인데,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Hofstede et al.(2010) 문화 지표를 사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양국 간의 지리적 거리가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로 사용된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거리가 짧을수록 무역비용이 낮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직면하는 수입된 재화의 가격은 낮고 수입 재화에 대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무역규모는 증가한다. 국가 간 거리는 자연적 무역파트너(natural trading partner)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그렇지 않은 파트너와의 협정 체결에 비해 후생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의 핵심적인 요인이다(Krugman 1991; Frankel et al. 1995; 1996; 1998). 아울러 무역의 흐름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무역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두 국가가 동일 대륙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식민지 경험을 추가한다.

양자 간의 직접적인 무역비용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와의 상대적 무역비용도 양국의 무역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Mercosur 사이의 무역규모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무역비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Baier and Bergstrand (2004), Egger and Larch(2008), Chen and Joshi(2010)를 비롯한 일부 선행 연구는 격지성(remoteness)으로 상대적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은 격지성은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나머지 국가와의 상대적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다자간 저항성(multilateral resistance)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시간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 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s model)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매우 복잡한 연산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측치가 많을 경우 현재의 통계프로그램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들어 Baier et al.(2010)은 거리와 대륙 더미변수를 활용하는 새로운 다자간 저항지수(multilateral resistance index)를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약간 변형한 다음의 변수를 다자간 저항지수로 이용한다.

$$MDist_{ij} = \ln \frac{1}{N} \left(\sum_k^N Distance_{ik} + \sum_k^N Distance_{jk} \right)$$

$$MCont_{ij} = \frac{1}{N} \left(\sum_k^N Cont_{ik} + \sum_k^N Cont_{jk} \right)$$

위의 식에서 Distance는 양국 간 거리 그리고 Cont는 동일대륙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이다. 거리 및 대륙 더미를 이용한 MDist 및 MCont는 거리(distance) 및 대륙 더미(continent)와는 반대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간 저항지수는 i 국 입장에서는 j 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국가와의 평균거리 또는 동일 대륙에 속하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Baier and Bergstrand 2009; Baier et al. 2010).

이상에서 논의한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과 기대되는 계수 값의 부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명변수와 계수 값의 기대 부호

설명변수	기대 부호	설명
$\ln(GDP_i * GDP_j)$	+	i 국과 j 국 경제규모를 나타낸다.
$ \ln GDP_i - \ln GDP_j $	-	양국 경제 규모의 차이
DKL	+	1인당 GDP의 차이로 측정된 양국 요소부존의 차이
DKL^2	-	DKL의 제곱
$\ln(Distance)$		i 국과 j 국 양국 수도의 거리
$Continent$	+	i 국과 j 국이 동일 대륙에 존재 여부
colony	+/-	과거 식민지 경험
$MDist$	+	상대적 거리로 측정된 다자간 저항지수
$MCont$	-	동일 대륙의 존재 여부로 측정된 다자간 저항지수
$Alliance$	+	군사 동맹의 체결 여부
$Democracy$	+	민주주의 발달 정도
$Language$	+	동일 언어 사용 여부
Religion	+	지배적인 종교의 공통성 여부

데이터

본 연구는 1995-2010년 기간에 존재하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무역협정(RTA)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 출처는 WTO 지역무역협정 데이터베이스이다(<http://rtais.wto.org>). 연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1995, 2000, 2005, 2010년의 5년간 데이터를 활용한다.

실질 국내총생산 및 실질 1인당 GDP와 국가별 인구에 대한 자료 출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이며, 기타 국가 간 거리, 동일 대륙 여부 및 공통 언어에 대한 자료 출처는 CEPII이다.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고려하는 양국 간 군사협정의 체결 여부 및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대한 자료의 출처는 COW(Correlates of War) project 및 Polity IV이다.³ 종교에 대한 데이터는 Association of Religion Data Archives(ARDA 2005)에서 얻었다. 이 데이터는 248개 국가 및 지역의 종교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종교는 15개로 세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불교, 크리스천, 힌두교, 유대교 및 이슬람교의 5개로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인 종교가 같으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영(0)을 갖도록 종교의 이항변수를 만들었다.

주요 변수의 통계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 변수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전체 관측치는 39,298 개이며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관측치는 2,743개로 전체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쌍은 36,555개이다. 두 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로그 GDP 합을 나타내는 $\ln(GDP_i * GDP_j)$ 의 평균을 보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평균이 26.6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더 크다. 아울러 요소부존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DKL 의 전체 평균은 1.51인데,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평균은 0.78이어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의 요소부존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양국 간 거리의 평균을 보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거리 평균이 7.43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의 평균 거리(8.78)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 이외에 고려하고 있는 정치 및 문화적 요인에 대한 평균을 보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더 크다. 즉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민주주의의 발달, 군사협정 체결 여부, 공통 언어의 사용 및 공통 종교에 있어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평균의 비교이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이들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3 COW project는 <http://www.correlatesofwar.org/>를 참조하였고, Polity IV project는 <http://www.systemicpeace.org/polity/polity4.htm>를 참조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통계 요약

변수	전체 (N=39,298)		RTA=1 (N=2,743)		RTA=0 (N=36,55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n(GDP) + \ln(GDP_{jt})$	25.91	1.68	26.61	1.53	25.86	1.68
$ \ln GDP_{it} - \ln GDP_{jt} $	25.29	2.12	25.76	2.01	25.25	2.12
<i>DKL</i>	1.51	1.07	0.78	0.65	1.56	1.07
$(DKL)^2$	3.41	4.15	1.03	1.64	3.59	4.23
$\ln(Distance)$	8.69	0.77	7.43	0.91	8.78	0.67
<i>Continent</i>	0.02	0.15	0.15	0.36	0.01	0.11
<i>Colony</i>	0.01	0.10	0.01	0.10	0.01	0.10
<i>MDist</i>	17.87	0.30	17.69	0.35	17.88	0.29
<i>MCont</i>	0.04	0.02	0.04	0.02	0.04	0.02
<i>Alliance</i>	0.08	0.34	0.36	0.62	0.05	0.29
<i>Democracy</i>	4.90	23.29	14.57	10.11	4.18	23.83
<i>Language</i>	0.15	0.35	0.19	0.39	0.14	0.35
<i>Religion</i>	0.44	0.50	0.72	0.45	0.42	0.49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 분석

1995-2010 기간에 걸쳐 전 세계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을 프로빗(probit)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간 변동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를 모든 모형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동시성으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lagged variable)를 사용하였다. 모형 (1)은 경제적 요인과 경제지리적 요인만을 고려한 것이고, 모형 (2)는 여기에 정치적 요인, 그리고 모형 (3)은 모형 (1)에 문화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포함한 경우이다. 모형 (4)는 경제적, 경제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모형 (4)에 대해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의 마지막 칸에 표시하였다.

표 3.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 분석

종속변수: RTA 체결 여부	(1)	(2)	(3)	(4) Coff. marg. effect	
$\ln(GDP_i * GDP_j)(-1)$	0.441 (0.028)***	0.371 (0.029)***	0.434 (0.028)***	0.371 (0.029)***	0.014 (0.001)***
$ \ln GDP_i - \ln GDP_j (-1)$	-0.164 (0.020)***	-0.144 (0.021)***	-0.163 (0.020)***	-0.144 (0.021)***	-0.006 (0.001)***
$DKL(-1)$	-0.019 (0.078)	0.013 (0.079)	-0.014 (0.077)	0.015 (0.078)	0.001 (0.003)
$(DKL)^2(-1)$	-0.123 (0.027)***	-0.124 (0.027)***	-0.122 (0.026)***	-0.122 (0.027)***	-0.005 (0.001)***
$\ln(Distance)$	-1.016 (0.036)***	-1.006 (0.034)***	-0.976 (0.036)***	-0.981 (0.034)***	-0.038 (0.003)***
<i>Continent</i>	-0.109 (0.120)	-0.091 (0.123)	-0.116 (0.120)	-0.096 (0.122)	-0.003 (0.004)
colony	0.150 (0.204)	0.152 (0.207)	0.124 (0.203)	0.130 (0.205)	0.006 (0.010)
<i>MDist</i>	0.073 (0.080)	0.038 (0.082)	-0.010 (0.081)	-0.016 (0.083)	-0.001 (0.003)
<i>MCcnt</i>	-6.215 (0.983)***	-5.033 (1.006)***	-6.193 (0.993)***	-5.089 (1.014)***	-0.197 (0.041)***
<i>Alliance(-1)</i>		0.192 (0.041)***		0.150 (0.044)***	0.006 (0.002)***
<i>Democracy(-1)</i>		0.021 (0.003)***		0.019 (0.002)***	0.001 (0.000)***
<i>Language</i>			0.100 (0.054)*	0.093 (0.054)*	0.004 (0.002)
Religion			0.341 (0.042)***	0.272 (0.044)***	0.011 (0.002)***
Pseudo R2	0.42	0.44	0.42	0.44	
관측치	30084	30084	30084	30084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 계수의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상수항은 추정에 포함되었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 **, 및 ***은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낸다.

먼저 양국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ln(GDP_i * GDP_j)$ 의 계수 값은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하고 양(+)의 부호를 갖고 있다. 이는 양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고 이에 따라 후생의 증가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국 경제규모의 차이를 나타내는 $|\ln GDP_i - \ln GDP_j|$ 의 계수 값은 음(-)의 부호를 갖고 1%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즉 양국의 경제규모 차이가 작을수록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크고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부터 기대되는 후생의 증가도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경제지리적 요인을 보면 두 국가 간의 거리가 멀수록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4)에서 두 국가 간 거리의 1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확률은 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일 대륙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식민지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그 계수 값은 영(0)과 다르지 않다. Anderson and van Wincoop (2003)이 지적한 다자간 격지성(multilateral resistance)을 통제하기 위한 $MDist$ 와 $MCont$ 를 보면 $MDist$ 의 계수 값은 유의하지 않고, $MCont$ 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치적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군사동맹의 체결 여부와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보면 두 변수 모두 양(+)의 부호를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군사동맹을 체결한 국가끼리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끼리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통 언어 및 종교를 보면 두 변수의 계수 값 또한 양(+)의 부호를 갖고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두 국가 간의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이 높을수록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Mercosur FTA 체결 확률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표 3의 모형에 의거하여 한국과 Mercosur 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확률을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실증분석모형에 따라 각기 다른 확률이 추정되었는데, 경제적 요인과 경제지리적 요인만을 고려하는 모형 (1)에 비해 정치, 문화적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는 모형 (2)와 모형 (3)이 더 낮은 확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과 Mercosur는 정치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근접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0년에 비해 2010년 한국과

Mercosur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과 Mercosur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이 더 성숙해졌고 앞으로 더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 한-Mercosur 지역무역협정 체결 확률 예측(단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2000년	2.10	1.68	1.15	1.04
2005년	5.69	5.81	3.46	3.87
2010년	8.91	8.34	5.60	5.7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 모형에 따라 한국과 Mercosur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보면 9% 수준을 넘지 않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Mercosur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추가적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95-2010년 전 세계 195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Mercosur FTA 체결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양국의 경제규모, 격차 및 요소부존도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정치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와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지역무역협정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요인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즉 경제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경제 규모의 차이가 작을수록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경제 지리적 요인도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지리적 거리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정치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일수록 그리고 문화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FTA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한-Mercosur FTA 체결 가능성을 추정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체결 확률이 최대 9%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ercosur의 FTA 정책의 분석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Mercosur가 체결한 FTA 대상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일부 중동국가에 국한된다. 또한 Mercosur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와 FTA 보다 낮은 단계인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대 이후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EU와의 FTA는 여전히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Mercosur의 FTA의 정책은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대외적 표방과는 달리 제한적인 개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 격지성을 고려하여 양자 간의 절대적 요인만이 아니라 상대적 요인을 고려하였으나,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도미노 효과와 같은 다른 국가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소위 제 3국 효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지역무역협정은 그 전 시기 지역무역협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차종속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Anderson, James E. and Eric van Wincoop(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3, pp. 170-192.
- ARDA(Association of Religion Data Archive)(2005), "Cross-national Socio-economic and Religion Data, <http://www.thearda.com/Archive/browse.asp>.
- Baier, S.L. and J.H. Bergstrand(2004), "Economic Determinants of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4, pp. 29-63.
- _____(2009), "Bonus Vetus OLS: A Simple Approach for Approximating International Trade-cost Effects Using the Gravity Equ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7, No. 1, pp. 77-85.
- Baier, S.L., J.H. Bergstrand and R. Mariutto(2010), "The Growth of Bilateralism," Working Paper, No. 12, Centre for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Economy, The University of Warwick.
- Bernard, A.B. and J.B. Jensen(2001), "Why Some Firms Export," NBER Working Paper, No. 8349.
- Bhagwati, J. and A. Panagariya(1996), "The Theory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Historical Evolution and Current Trend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 pp. 82-87.
- Chen, M.X. and S. Joshi(2010), "Third-country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2, pp. 238-248.
- Chun, Hongtack and Myung-Ho Park(2011), *Integration Strategy for East Asia(II): Focusing on Korea, China and Japa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Egger, P. and M. Larch(2008), "Interdependen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Membership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6, pp. 384-399.
- Fabio, G. and M.J. Melitz(2005), "International Trade and Macroeconomic Dynamics with Heterogeneous Fir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0, pp. 865-915.
- Frankel, J.A., E. Stein, S.J. Wei(1995), "Trading Blocs and the Americas: The Natural, the Unnatural, and the Super-natural,"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7, pp. 61-95.
- _____(1996),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Natural or Supernatur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 pp. 52-56.
- _____(1998), "Continental Trading Blocs: Are They Natural or Supernatural," in J.A. Frankel(ed.),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91-113.
- Hegre, H. and J.R. Oneal and B. Russett(2010), "Trade Does Promote Peace: New Simultaneous Estimate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pp. 763-774.
- Helbe, M.(2007), "Is God Good for Trade?," *Kyklos*, Vol. 60, pp. 385-413.
- Hofstede G., G.J. Hofstede and M. Minkov(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 of the Mind*, 3r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Kim, Chong-Sup(2004), "Non-Common External Tariffs and Trade Diversion: The Case of Mercosur,"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13, No. 4.
- Kim, Jino, et al.(2011), *The 20 Years of MERCOSUR: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im, Ki-Hyun and Ki-Su Kwon(2011), *Understanding Latin American Economy: Natural Resources, Inequality, and Reforms*, Hanul Academy.
- Kim, Won-Ho, et al.(2006), *MERCOSUR's Free Trade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a Korea-MERCOSUR FTA*, Policy Analysis 06-16,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rugman, P.(1991), "The Move Toward Free Trade Zones," *Policy Implications of Trade and Currency Zones*, proceedings of a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symposium, pp. 7-41.
- Lee, Jai-Ki(2005), *Economic Integration*, Hanol Publishing.
- Lipsey, R.G.(1960),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 General Survey," *Economic Journal*, Vol. 70, No. 3, pp. 496-513.
- Malamud, Andrés(2005), "Mercosur Turns 15: Between Rising Rhetoric and Declining Achievement,"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8, No. 3, October.
- Mansfield, Edward, Helen Milner and B. Peter Rosendorff(2002), "Replication, Realism, and Robustness: Analyzing Political Regimes and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6, pp. 167-169.
- Mansfield, Edward and Jon Pevehouse(2000), "Trade Blocs, Trade Flows,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pp. 775-808.
- Martin, P., T. Mayer and M. Thoenig(2008), "Make Trade Not War?,"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5, pp. 865-900.
- _____(2011), "The Geography of Conflicts and Free Trade Agreements," mimeo.
- McFadden, D.(1975), "The Revealed Preferences of a Government Bureaucracy: Theory,"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6, pp. 401-416.
- _____(1976), "Quantal Choice Analysis: A Survey,"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Vol. 5, pp. 363-390.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2015), [accessed January 5], <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fta/term/>
- Park, I. and S. Park(2013), "Cultural Affinity, Political Ties, and Endogenous Regional Trade Agreements: A New Empirical Evidence," mimeo.
- Wonnacott, P. and M. Lutz(1989), "Is There a Case for Free Trade Areas?," in Scott(ed.),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